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언약을 지킬 때 받는 복

12 만약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서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13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며 너희의 수를 늘려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태어날 너희의 자손과 너희 땅의 수확물, 곧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소 떼와 너희 양 떼에게 복 주실 것이다. 14 너희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너희 남자들이나 여자들 가운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 없겠고 너희 가족들 가운데 새끼가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15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알던 그 끔찍한 질병들을 너희 위에 내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리실 것이다. 16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덧이 될 것이다.

모두 멸망시키라

17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18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라. 19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그 큰 시험들, 이적들과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그 강력한 손과 꺾 뺀 팔을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20 거기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피해 살아남아 숨은 사람들조차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로 말벌을 보내실 것이다. 21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다. 22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저 민족들을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 모두를 한번에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너희 주변에 들끓을지 모르니 말이다. 23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 주셔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실 것이다. 24 그분이 그들의 왕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 버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대항해 들고 일어날 수 없으며 너희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25 그들의 신들의 형상을 너희는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가져가지도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덧이 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26 너희 집에 가증스러운 것을 들이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

3 묵상하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백성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12절).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취할 것과 없앨 것, 섬길 것과 섬기지 말 것을 구분하고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정복해야 할 나라들은 쉬운 상대가 아니며, 그곳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18-20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백성은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승리하게 해주실 주님을 붙들고 싸움터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차츰차츰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4 적용하기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거나 두렵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크고 두려워 보이는 그 일, 그 환경, 그 사람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거들 뿐,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거나 두렵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때는 언제인가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순종하지 못할 크고 작은 핑계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광야를 기억하라

1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3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4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츠지도 않았다. 5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6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7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8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으며 올리브 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9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캐 것이다. 10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3 묵상하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겪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이유 없이 방황하는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마치 사람이 자식을 훈육하듯 가르치고 기르셨습니다(5절). 백성에게는 왜 그래야만 했는지 모를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그동안 그들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3-4절). 이 광야 훈련을 거친 백성은 전보다 더욱 성장했고 단단해졌고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동시에 좋은 것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내 삶이 답이 없어 보여도,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며 걷다 보면 나는 어느새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자녀로 훌쩍 자라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될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붙들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나를 흔들지만 이것이 믿음의 훈련임을 알고 담대히 걸어갈 마음을 먹었나요?
- 예상치 못한 삶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오늘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교만에 대한 경고

11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12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13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14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15 그분이 독사와 전갈이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그 마르고 물 없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셨고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16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너희를 낫추시고 시험해 결국에는 너희가 잘되게 하셨다. 17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18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

19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0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다."

3 묵상하기

우리도 절박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지나온 순간들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자신에게 모든 공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17절)고 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질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껏 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15-16절)을, 교만함이 불쑥 고개를 내미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기(18절)를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지금 나의 일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교만의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되새기고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4 적용하기

나는 “내가~했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서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잊기 쉬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매 순간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이자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민하고 적용하는 오늘의 묵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나는 평범하고 평안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묵상하나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했다!”라며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나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약속된 승리

1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 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2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에게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3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4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은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5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6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진노의 사건을 기억하라

7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 왔다. 8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

3 묵상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붙이시고, 백성보다 앞서 가셔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대단하고 의로워서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은 정반대였습니다. 교만했고(6절), 광야 생활 내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6-7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도구로 그 땅을 치시는 것은 첫째로 그곳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이었고(4절), 둘째로는 백성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5절). 그러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자신들의 연약한 과거를 돌아보며 그런 자신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출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 역시 내세울 것 없고, 주님께 붙들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죄를 함부로 평가하고 심판하려 하지 않나요?
-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가며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일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서 가시는 주님을 담대히 따르겠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하나님의 진노**

9 내가 그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빵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도 못했다. 10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거기에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명령들이 있었다. 11 40일 밤낮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내게 그 두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12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당장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에서 저렇게 빨리 등을 돌려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13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 백성들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14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하늘 아래에서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들보다 더 강하고 많은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모세의 중보기도

15 그리하여 나는 뒤돌아 불붙은 산에서 내려왔다. 언약의 두 돌판이 내 손에 있었다. 16 내가 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고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무나 쉽게 돌아선 것이었다. 17 그리하여 내가 두 돌판을 내던져 너희 눈앞에서 산산조각을 냈다. 18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한 번 여호와 앞에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는 그 모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19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 진노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20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21 나는 또 너희가 만든 너희 죄악의 산물인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 버렸다. 그리고는 부수어 흙처럼 가루를 내 산 아래로 흘러가는 시냇물에 뿌렸다.

3 묵상하기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 눈에 보이는 익숙한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던 모세와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서 있던 백성 중 지금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고 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틈만 나면 우상을 두고, 나의 감정, 나의 고집 등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모세가 백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했듯,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우상, 나의 연약한 모습을 모두 불태우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4 적용하기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성경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QT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즐거운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닮아 있지는 않나요? 그런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것, 흥미로운 것에 눈 돌리는 백성에게서 내 모습이 보이지는 않나요?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백성의 죄악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한 모세처럼, 내가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고, 그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연약한 저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님을 따라 저 또한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로 서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69장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반역만 일삼아 온 백성

22 너희가 또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한 것은 다베라, 맛사, 기브롯 핫다아와에서였다. 23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끌어 내실 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올라가 차지하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너희는 그분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 24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안 뒤로 줄곧 반역만 일삼아 왔다.

모세의 중보기도

25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40일 밤낮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다. 26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말했다.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 주께서 주의 큰 능력으로 구속해 강력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주의 기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27 주의 종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역센 고집과 그 사악함과 그 죄를 눈감아 주십시오. 28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실 그 나라가 '여호와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낼 수 없었고 그들이 미워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해 냈구나' 할 것입니다. 29 그들은 주의 백성이요,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쥔 뻔친 팔로 이끌어 내신 주의 기업입니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기도' 로 마칩니다.